

19세기 중엽 동래부 관아(官衙)의 유지와 관리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ongnaebu Government Office building as seen through Official Documents in the mid-19th century

송혜영*

Song, Hye-Young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Dongnaebu, Gyeongsangdo in the mid-19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ngraebu was an important point of national defense and a place of trade and diplomacy with Japan, so it had many government facilities. There are very few government facilities remaining today, and no structure remai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grasp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facilities through the old materials. Currently, there are public document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such as Eupji, Eupsarye, and Junggi. Through comparison between public documents, we will examine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mid-19th centu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department and managed like articles. In addition, the name, size, and changes were all recorded in the management of the goods, and the authority of responsibility was clearly stated. This result is because the remaining material has the purpose of preparation as an accounting boo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managed by a systematic department with clear authority.

주제어 : 동래부, 관아, 내부중기, 유지와 관리

Keywords : Dongnaebu, Government Office building, Raebujunggi, Maintenance and Management

1. 서론

조선 후기 경상도 동래부(東萊府)는 동남해안의 관방(關防) 고을이자 독진(獨鎭)을 갖춘 군사요충지였고, 대일(對日) 외교 및 교역의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느 고을에 비해 위상이 높았다. 읍성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도 군사 및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대규모 관아 시설도 많았다.

여타 지역과는 달리 다양한 관아 시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876년 근대 개항 이래 여러 역사적 굴곡을 거치며 그 기능을 잃고 소멸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관아 시설들은 철거 혹은 이전되었고 그 결과 동헌, 외대문 등 극소수 건물을 제외하

고 그 유구조차 남기지 못했다.

건물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고문헌과 고지도 등 현존 발굴 자료를 통해 관아의 명칭이나 규모, 위치 등을 추적할 수 있었고 진전된 성과를 얻었다.¹⁾ 그렇지만 건축사적 관점에서 여러 지역의 읍성 규모와 관아 배치 및 특성 등은 기존 연구 등을 통해 고찰됨에 따라 일정한 연구 성과를 이뤘으나, 관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지방 관아와 관련한 직접적 사료의 발굴이 어렵고 그나마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고찰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사(地方史)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여러 사료의 집성(集成)이 이뤄졌다. 기초적인 사료라 할 수 있는 읍지(邑誌)를 중심으로 읍사례(邑事例)와 중기(重記), 해유(解由) 문서 등 여러 종류의 공

* Corresponding Author : shy-772-@daum.net

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0R111A1A01058515)

1) 송혜영, 『동래지역 읍·영·진성의 공간구조와 관아시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문서가 발굴되어 공개됨에 따라 해당 고을에 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근래 발굴된 여러 공문서를 엮은 집성 사료가 출간되면서 지방 관청의 재정 및 운영 실상을 보여주는 중기(重記) 문서의 집성도 이뤄졌다.²⁾ 조선시대 지방 관청의 물품 수입·지출·재고 현황 등을 기록했던 중기는 당시 상황을 증빙·확인해주는 공문서였다.

최근 집성된 사료들 대부분은 19세기에 작성된 것들로 그 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래부가 작성했던 공문서 일부도 발굴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작성된 동래부의 읍사례 및 중기의 발굴로, 한정된 시기이지만 관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동래부가 1859년 작성한 《내부중기(萊府重記)》는 유일하게 발굴된 중기이며, 관청 기구 및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공문서로 가치를 지닌다.³⁾

본 연구는 최근 발굴되어 집성된 사료 간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동래부 관아 시설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었는가에 대한 배경과 방법 등, 지속적인 존립을 위한 건축 활동을 이해하고 실태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여기서 이행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조선 후기 여느 고을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며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규명은 조선 후기 지방 관아의 지속적 존립을 위한 건축 활동을 살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2. 조선 후기 동래부 관아의 구성

2-1. 읍지에서 나타나는 관아 시설

경상도 동래부는 도호부(都護府)로서 도호부사[정3품]가 관장하는 지방 행정기구의 하나이며, 명종2년(1547) 대일(對日) 외교 및 교역의 요충지로 인지되어 현(縣)에서 승격해 출공 존속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관방(關防)의 요충지로 인식되어 전후 독진(獨鎭)⁴⁾이 되었고, 경상좌수영이 부(府) 관할 내로 옮겨오면서 해방(海防)의 수호까지 담당하게 된다.

조선 후기 지방 관아 시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기

2)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3) 내부중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로는 「조선 후기 동래부의 내부중기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남권희·진유라·강유현, 서지학연구 제60집, 2014)이 있으며 기록사적 관점에서 중기를 분석하였다.

4) 조선 후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정한 독립진영을 뜻하며, 鎭管體制가 유지됨에 따라 동래부의 군사권은 경상좌병영 휘하 慶州 巨鎭의 첨절제사인 慶州府尹이 장악했으나, 동래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효종6년(1655) 東萊獨鎭이 분리되어 梁山郡과 機張縣 소속의 군사까지도 통합하여 동래부사가 지휘하게 되었다.

본 사료는 읍지(邑誌)이다. 18~19세기 활발했던 관찬(官撰) 읍지의 작성은 정책 사료로서, 통치행위에 있어 읽는 이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동래부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읍지는 총 6편이며, 가장 오래된 것이 영조16년(1740)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 재임 1739.8~1741.1)이 작성한 《동래부지(東萊府誌)》⁵⁾이다. 규장각 소장 1책[99장] 필사본이며 구성은 읍지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은 읍사례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을 토대로 서술한 특징을 갖는다.

영조35년(1759) 경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는 1757~1765년 무렵 성책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일부분이며, 한국고교회연구소에 소장된 것이다. 그리고 1832년 경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의 일부로서 작성된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는 이후 작성되는 읍지의 저본(底本)이 되었다.

1864년 고종(高宗) 즉위 이후 전국적으로 읍지 및 읍사례 상송령(上送令)이 내려졌고, 1871년과 1895년 두 차례에 걸쳐 영남읍지(嶺南邑誌)가 작성되었다. 다음 <표 1>은 현존하는 동래부 관련 관찬 읍지와 읍사례의 내역으로 1740년부터 1899년까지 160여 년에 걸쳐 만들었다. 읍지 이외 별도로 작성된 읍사례가 1편 남아 있으며 1868년에 작성된 것이다.

표 1. 현존하는 조선 후기 동래부 읍지 및 읍사례

명칭	작성연도	구성	특징
東萊府誌	1740년	읍지	邑事例를 참조
東萊府邑誌	1759년경	읍지	輿地圖書 일부
東萊府邑誌	1832년경	읍지	慶尙道邑誌 일부
東萊事例	1868년	읍사례	邑事例로 별도 제작
東萊府邑誌	1871년	읍지	嶺南邑誌 일부, 읍사례 첨부
東萊府邑誌	1895년	읍지	嶺南邑誌 일부, 읍사례 첨부
東萊府邑誌	1899년	읍지	

* 1759년경 작성된 동래부읍지(輿地圖書)를 제외하면 나머지 6편 모두 규장각 所藏書

18세기 작성된 2편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동래부의 읍지는 모두 19세기 작성된 특징을 갖는 규장각 소장서이다.⁶⁾ 1864년 고종(高宗) 즉위 이후 전국적으로 읍지 및 읍사례 상송령(上送令)이 자주 내려졌고, 그 결과 1871년과 1895년 두 차례에 걸쳐 영남읍지(嶺南邑誌)가 만들어졌다.

5) 동래부지[奎11904]의 서문에 부사 李瑞雨가 撰述한 叢山後誌와 東萊勝覽書後誌 두 책을 참고하고 邑人들을 방문하여 얻은 것을 토대로 本書를 편찬하였다는 박사창의 글이 있다. 현존하는 읍지 중 동래부지의 경우에 읍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6) 東萊府邑誌[1832년, 奎4272], 東萊府邑誌[1871년, 奎12173], 東萊府邑誌[1895년, 奎12174], 東萊府邑誌[1899년, 奎10877]는 읍지로 분류되며, 萊府事例[1868년, 奎4272]는 읍사례로 작성되었다.

19세기 읍지의 작성 의도는 중앙에서 전국 각처의 재정 및 회계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함이었기에, 읍사례를 읍지에 후술했으며 동래부 또한 이러한 작성 의도에 따라 읍지에 읍사례를 첨부했다. 그리하여 동래부의 읍지는 6편이 작성되었고 이 중 1편은 읍지 형태에 후술(後述)로서 읍사례가 첨부된 사료로 남겨지게 된다.⁷⁾ 읍사례가 별도로 작성된 사례는 고종5년(1868)의 《동래사례(東萊事例)》 뿐이다.

《동래부지(1740)》를 제외한 동래부 관련 5편의 읍지[1757년·1832년·1871년·1895년·1899년] 내용은 상호 비슷하여 전사(傳寫)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기별로 읍지마다 작성 목적과 특징이 있으므로 내용간의 비교를 통해 동래부 관아의 상황을 고증할 수 있다. 우선 현존하는 읍지 내용 속에서 기재된 관아 시설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관아 명칭에 있어서 최고(最古)와 최후(最後)의 것에 대한 작성 연대가 160여년의 차이가 있어 차이를 보이며, 관아의 폐지 혹은 노후화로 인해 존폐를 겪은 시설도 있었다.

19세기 작성된 읍지는 각 고을별로 작성되었기에 체제나 내용은 대체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동래부 읍지 경우에는 여러 관아 시설을 궁실(宮室), 관사(官舍), 청사(廳舍), 창고(倉庫), 학교(學校), 공해(公廩), 누정(樓亭), 단묘(壇廟) 등으로, 관방 관련으로 성지읍성(城池邑城), 영진보(營鎭堡), 봉수(烽燧) 등으로 구분해 기술했다. 이러한 목적은 전사(傳寫)를 통해 유지되었다.

현존 읍지를 통해 확인되는 점은 우선 주요한 관아 일부만이 확인되며, 거둬지는 전사로 인해 향후 추가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했다. 다만 《동래부지(1740)》에서 찾을 수 있는 관아 시설이 19세기 작성된 읍지들 것보다 더 많다는 점은 주목된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세기의 관아가 18세기의 그것보다 적게 기술되었고 규모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 후대로 갈수록 읍지의 정확성이나 내용의 풍부함이 떨어져 전사(傳寫)에 의한 폐해로 보인다. 현존 읍지간의 비교를 통해 후대의 것이 전대의 것보다 기록이 못한 점은, 전사로 기술된 읍지가 사료로서 갖는 정보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 관아의 연구에 있어서 읍지는 기본적인 사료이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읍지의 성격은 군사·재정 중심적인 것으로 변모하였고 내용도 방대했지만 정확성이나 풍부함이 예전만 못했다.

표 2. 역대 동래부읍지에 수록된 각종 관아 시설

명칭	1740년	1759년	1832년	1871년	1895년	1899년
忠信堂	○	○	○	○	○	○
大門	○	×	×	×	×	×
東翼廊	○	×	×	×	×	×
西翼廊	○	×	×	×	×	×
外大門	○	×	×	×	×	×
東中門	○	×	×	×	×	×
內行廊	○	×	×	×	×	×
馬廄	○	×	×	×	×	×
公須廳	○	×	×	×	×	×
篤敬堂	○	○	○	○	○	○
緩帶軒	○	○	○	○	○	○
芙蓉堂	○	×	×	×	×	×
燕深堂	○	○	○	○	○	○
晦息堂	○	○	×	○	○	○
贊壽軒	○	×	×	×	×	×
蓬萊館	○	○	○	○	○	○
大門	○	×	×	×	×	×
左右挾門	○	×	×	×	×	×
行廊	○	×	×	×	×	×
北公須	○	×	×	×	×	×
別館	○	×	×	×	×	×
鄉廳	○	×	×	×	×	×
裨將廳	×	○	×	×	×	×
鄉射堂	×	○	×	×	×	×
中軍廳	○	○	×	×	×	×
將官廳	○	○	×	×	×	×
教鍊廳	○	○	×	×	×	×
軍官廳	○	○	×	×	×	×
別武士廳	○	○	×	×	×	×
別騎衛廳	○	○	×	×	×	×
守堞廳	○	○	×	×	×	×
烽臺廳	○	×	×	×	×	×
都訓導廳	○	○	×	×	×	×
人吏廳	×	○	×	×	×	×
作廳	○	×	×	×	×	×
營房	○	×	×	×	×	×
書役廳	○	×	×	×	×	×
藥房	○	×	×	×	×	×
奴婢所	○	×	×	×	×	×
小童房	○	×	×	×	×	×
使令房	○	×	×	×	×	×
軍牢房	○	×	×	×	×	×
官奴房	○	×	×	×	×	×
教房	○	×	×	×	×	×
留布庫	○	×	×	×	×	×
刑杖庫	○	×	×	×	×	×
紙筒庫	○	×	×	×	×	×
使守直庫	○	×	×	×	×	×
軍器庫	○	○	○	○	○	○
官廳	○	○	○	○	○	○
接慰廳	○	×	×	×	×	×
補役廳	○	×	×	×	×	×
運米所	○	×	×	×	×	×
鷄雉廳	○	×	×	×	×	×

7) 1871년의 동래부읍지에는 附事例로 관할 내 釜山鎭과 西平鎭이 첨부되었고, 동래부 자체의 읍사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司倉	○	○	○	○	○	○
公木庫	×	○	○	○	○	○
大同庫	○	○	○	○	○	○
公作米庫	×	○	○	○	○	○
工房	○	×	×	×	×	×
支待庫	○	○	○	○	○	○
書契所	○	×	×	×	×	×
雇馬廳	○	○	○	○	○	○
州司	○	×	×	×	×	×
守城倉	○	○	○	○	○	○
釜倉	○	○	○	○	○	○
石氷庫	○	○	○	○	○	○
日供庫	×	○	○	○	○	○
山城倉	×	○	○	○	○	○
志喜樓	○	×	×	×	×	○
無憂樓	○	×	×	×	×	○
心成樓	○	×	×	×	×	○
隱一樓	○	×	×	×	×	○
人和門	○	×	×	×	×	×
堡樓	○	×	×	×	×	×
大成殿	○	○	○	○	○	○
東廡	○	×	×	×	×	×
西廡	○	×	×	×	×	×
典祀庫	○	×	×	×	×	×
神門	○	×	×	×	×	×
左中門	○	×	×	×	×	×
右中門	○	×	×	×	×	×
明倫堂	○	×	×	×	×	×
東齋	○	×	×	×	×	×
西齋	○	×	×	×	×	×
南樓	○	×	×	×	×	×
大門	○	×	×	×	×	×
典穀所	○	×	×	×	×	×
公須	○	×	×	×	×	×
庫舍	○	×	×	×	×	×
首奴廳	○	×	×	×	×	×
書員廳	○	×	×	×	×	×
大門	○	×	×	×	×	×
社稷壇	○	○	○	○	○	○
城隍堂	○	○	○	○	○	○
厲壇	○	○	○	○	○	○
望美樓	×	○	○	○	○	○
息波樓	×	○	○	○	○	○
將臺	×	○	○	○	○	○
鍊武亭	×	○	○	○	○	○
靖遠樓	×	×	○	○	○	○

* 주 : 관청은 官廳庫, 고마정은 雇馬庫로도 추정 해석
仁和門은 오늘날 人生門으로 추정

2-2. 읍사례에서 나타나는 관아 시설

지방 관아 연구에 있어서 읍지와 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사료로 읍사례가 있다. 읍사례(邑事例)⁸⁾는

8) 읍사례는 지방 관아의 조직과 재정운영 등을 기록한 실무 시행 지침서로서 각 읍별, 작성 시기별로 일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면서 내용과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870년과 1894년 ‘읍지 및 읍사례 상송령’에 따라 전국을

고을의 규칙에 해당하는 이른바 ‘읍규(邑規)’로서 법전에서 규정하지 않은 하위규정으로 작용했다.

18세기 이래 관찬 읍지의 편찬이 당시 사회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 등을 간략하지만 고증하여 기록한 특징을 갖는다면, 읍사례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읍지와는 달리 읍사례는 고을 내 부서별로 분장내역과 재정운영 그리고 하부조직의 수입·지출상태를 정리해놓았기에 전체적인 예산운용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어느 관아 시설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출됨을 적시하기 때문에, 읍지에서 볼 수 없는 다수의 관아 명칭을 찾을 수 있다. 즉 읍지는 주요 관아만을 약술하는 반면에, 읍사례에서는 관청 회계의 투명성을 지향하므로 지출내역 등을 통해 확실히 구분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의 읍지에서 볼 수 없는 관아 시설이 18세기의 기록에 등장한다. 최초의 읍지인 《동래부지(1740)》가 대략 읍사례의 구성을 기반해 기술하였으므로 후대의 것과 차별된다.

이러한 읍지에서는 동헌을 충신당(忠信堂)으로, 객사를 봉래관(蓬萊館)으로 기록할 뿐 건물의 내용이나 성격을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반면에, 《동래부지(1740)》는 건물의 위치 및 내역과 함께 충신당이나 봉래관 영역 내 대문이나 부속건물 규모까지 함께 기술하고 있어 작성 시점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 <표 3>은 읍지인 《동래부지(1740)》에 기술된 여러 관아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즉 18세기의 읍지가 19세기의 읍지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는 《동래부지(1740)》가 읍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동래부 관아는 시설마다 나름의 일곽을 이루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동헌 일곽은 고을 수령이 집무하던 충신당을 중심으로 양편에 동익랑과 서익랑을 두었고 내행랑과 공수청 그리고 독경당, 완대헌, 연심당 등 여러 부속 건물을 두루 갖추었으며 외대문을 주출입구로 하는 하나의 완성된 공간을 이뤘다. 다른 관아 영역도 마찬가지로 집무실인 좌기청(坐起廳)을 중심으로 행랑, 고, 대문 등을 갖추 하나의 일곽을 형성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읍사례의 기술 특징은 부서별 조직 체계에 따라 내용을 기록한 점이다. 읍지의 경우에 관사, 청사, 공해 등 목차를 두어 서술하는 데 반해, 읍사례는 철저히 부

대상으로 한 읍사례 제작과 파악이 이루어져 다수가 현존한다.

서인 ‘색(色)’을 중심에 두고 서술한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읍지 및 읍사례의 기술 형태를 보여주며 전자는 항목에 따라 기술하지만, 후자는 부서별[色]로 내역을 기재한 특징을 갖는다.

표 3. 동래부지(1740)에서 동래부 관아 시설 내역

내역	시설 명칭 및 규모(칸)
官舍	東軒 忠信堂(10)·大門(3)·東翼廊(2)·西翼廊(4)·外大門(3)·東中門(1)·內行廊(6)·馬廄(3)·公須廳(11)·篤敬堂(6)·綏帶軒(8)·燕深堂(8)·晦息堂(6)·贊壽軒(14)·芙蓉堂(毀撤)
	客舍 蓬萊館(39)·大門(3)·左挾門(1)·右挾門(1)·行廊(6)·北公須(8)
廳舍	鄉廳 坐起廳(12)·大門(3)·外大門(1)·東中門(1)·東行廊(4)·西行廊(7)·南行廊(4)
	將官廳 坐起廳(5)·行廊(11)·大門(1)
	教鍊廳 坐起廳(6)·大門(1)
	外軍官廳 坐起廳(11)·行廊(8)
	別武士廳 坐起廳(10)·東行廊(4)·大門(1)
	別騎衛廳 坐起廳(9)·行廊(4)·大門(1)
	守堞廳 坐起廳(4)·南行廊(3)·大門(1)
	都訓導廳 坐起廳(4)·西行廊(3)·南行廊(3)
	作廳 坐起廳(7)·東行廊(3)·南行廊(5)·西行廊(4)
	書役廳 坐起廳(8)·行廊(5)
	藥房 坐起廳(6)·中大門(1)
	奴婢所 坐起廳(4)·行廊兼大門(2)
	小童房 坐起廳(3)·歇所(1)·大門(1)
	使令房 坐起廳(8)·西行廊(5)·南行廊(4)·大門(1)
	官奴房 坐起廳(8)·西行廊(4)·大門(1)
	教房 坐起廳(8)·行廊(3)·大門(1)
	別館(4)·中軍廳(3)·烽臺廳(4)·營房(6)·軍牢房(8)
倉庫	東軒 留布庫·刑杖庫
	紙筒庫 坐起廳(3)·吸唱房(1)·簾門
	軍器庫 坐起廳(3)·東庫(3)·西庫(6)·火藥庫(2)·大門(1)
	官廳 坐起廳(3)·東庫(7)·西庫(13)·北庫(13)·南庫(10)
	司倉 坐起廳(6)·東庫(14)·南庫(6)·大門(1)
	補役廳 東庫(10)·北庫(5)·西庫(9)
	大同庫 西上庫(10)·外上庫(4)
	工房 坐起廳(3)·東行廊(6)·西行廊(4)·南庫(4)·大門(1)
	支持庫 坐起廳(3)·元庫(5)·行廊(7)·西庫(2)·大門(1)
	書契所 坐起廳(5)·公木庫(8)·戶曹庫(5)·進上庫(4)·大門(1)
	雇馬廳 坐起廳(2)·庫(10)·大門(1)
	鷄雉廳 庫(3)·大門(1)
	貿易廳 坐起廳(4)·庫(4)·大門(1)
	州司 坐起廳(8)·東行廊(5)·西庫(3)·大門(1)
	守城廳 坐起廳(6)·西庫(20)·南庫(5)·北庫(6)·火藥庫(1)·鳥銃庫(2)·大門(1)
	釜倉 坐起廳(3)·公作米庫(42)·耕米庫(16)·日供庫(14)·別庫(6)·大同庫(24)·外上庫(3)·南門(1)·東門(1)
	運米所 坐起廳(3)·庫(3)
	使令守直庫(2)·接慰廳(5)·石水庫
	樓亭 靖遠樓(12)·息波樓(6)

읍지에 기록된 관아는 동헌 일곽이나 창고 시설이 전부인 반면에, 읍사례에서는 부서별[色]로 지출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사(府司)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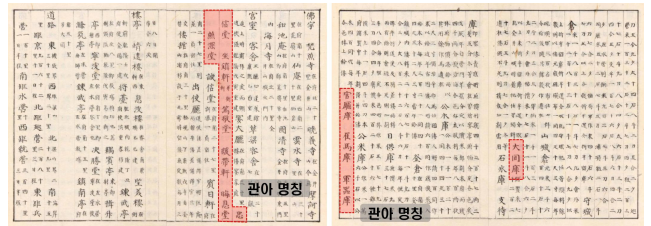


그림 1. 동래부읍지(1871)에서 기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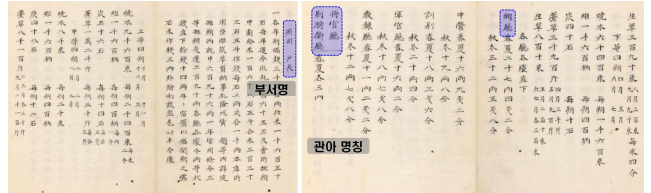


그림 2. 동래사례(1868)에서 기술 형태

장이 맡으며 향청(鄉廳), 장관청(將官廳), 별기위청(別騎衛廳) 등의 여러 관아 및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재정 지출 내역까지 보여준다. 즉 읍사례는 행정과 재정을 일치시켜 관청 회계의 투명성을 지향하므로,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특성으로 인해 읍지에서는 볼 수 없는 관아까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각 고을마다 읍사례는 존재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매우 드물며, 동래부와 관련된 것으로는 《동래사례(1868)》와 《동래부읍지(1895)》에 수록한 부사례(附事例) 정도이다. 전자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되었고, 후자는 읍지 부록으로 후술되었다.

《동래사례(1868)》는 단독 읍사례로 작성된 특징을 가지며, 해당 행정조직의 재정 및 회계를 일목요연 정리하였다. 읍사례의 기술 특성상 행정부서인 ‘색(色)’을 중심으로 서술하므로, 구성 및 기술면에 있어 중기(重記)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방(關防)의 요충지였던 동래부의 특성상 여러 무청(武廳)이 여느 지역보다도 발달했으나, 읍지에서는 중시하지 않아 그 존재 및 명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읍사례의 경우에 관청 운영 전반에 대해 기술하였으므로, 읍지에서 볼 수 없는 관아 명칭이 나타나 여러 시설을 찾을 수 있다.

다음 <표 4>는 《동래사례(1868)》에 기록된 동래부 관아 시설 및 충원(充員)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고을 행정(行政)과 군정(軍政)이 통합된 재정 및 회계 상태를 보여주는 읍사례 특성상, 해당 부서에 속한 직책과 충원까지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중엽 동래부에는 동래부사 직속에 인리 및 소동 등 다수의 관속(官屬)이 배치되었고, 좌수가 주도하는 향청을 비롯하여 중영, 군기소 등 여러

표 4. 동래사례(1868)를 통해 정리된 관아 시설 및 관아별 충원

官屬		鄉廳		中營		軍器所		軍官廳		敎鍊廳		都訓導廳	
人吏	48人	座首	1員	中軍	1員	監官	1人	行首軍官	1員	旗鼓官	2人	都訓導	4人
小童	35人	別監	2員	小童	4名	色吏	2人	兵房軍官	2人	知穀官	2人	訓導	36人
日守	4名			陪軍牢	1名	庫子	1名	掌務軍官	1人	次執事	4人		
妓生	31口							設門將	3人	小童	2名		
官奴	33名							守門將	3人	廳直	1名		
官婢	13口							別軍官	290人	馬丁	72名		
軍牢	22名							小童	2名				
使令	26名							廳直	1名				
								討捕將	4人				

將官廳		別騎衛廳		親兵衛廳		作隊廳		守城廳		別武士廳	
千摠	1人	別將	1員	別將	1員	別將	1員	別將	1員	別將	1員
把摠	2人	百摠	3人	百摠	3人	百摠	2人	百摠	4人	百摠	2人
所任哨官	1人	掌務軍官	1人	掌務軍官	1人	小童	2名	掌務軍官	1人	掌務軍官	1人
哨官	14人	別騎衛	300人	親兵衛	300人	廳直	1名	軍官	400人	軍官	200人
小童	2名	小童	2名	小童	2名	標下軍	21名	小童	2名	小童	2名
廳直	1名	廳直	1名	廳直	1名			廳直	1名	廳直	1名
		標下軍	53名	標下軍	38名			標下軍	37名	標下軍	36名
		西門將	2人	仇法谷譏察將	1人			南門將	2人	北門將	2人
		暗門將	2人					東門將	2人	北門直	1名
		什休亭譏察將	1人					人生門將	2人	什休亭譏察將	1人
								南門直	1名	黃嶺山烽燧別將	1人
								東門直	1名		
								人生門直	1名		
								什休亭譏察將	1人		
								雞鳴山烽燧別將	1人		

관아가 나름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관아별로 충원 상태는 그 위상과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소속된 인원이 많을수록 그에 비교되는 재정이 투입되었고 적합한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관청의 위계는 보통 수장의 지위에 결정되므로,9) 동래부 관아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표 4>에서 관아별 충원 상태를 보면 직책을 맡은 사람의 수효에 있어 신분에 따라 원(員), 인(人), 명(名), 구(口)로 나뉘어 표기하였다. 관원(官員) 신분을 뜻하는 ‘원(員)’의 경우에는 향청, 중영, 군관청, 별기위청, 친병위청, 작대청, 수성청, 별무사청의 수장급 정도에서 볼 수 있어 여타 관아보다 위계가 높았을 것이다. 교련청이나 군기소, 장관청, 도훈도청 등은 충원을 인명으로 표시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 관아 내에도 다양한 신분을 지닌 인원으로 충원·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읍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래부 산하 무청(武廳)의 각 기능을 충원된 명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래부는 관방 요충지인 ‘독진(獨鎭)’으로 별도

의 군사력을 갖추었고, 이러한 특징을 여러 무청들이 임무를 분장해 뒷받침했다. 읍사례 기록을 통해 이를테면 별기위청은 동래읍성의 서문과 암문, 십휴정을, 친병위청은 구법곡을, 수성청은 동래읍성의 남문과 동문, 인생문, 십휴정 및 계명산봉수를, 별무사청은 북문과 십휴정, 황령산봉수를 관리해10) 동래부 내 주요 군사 지점을 분장해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의 읍지에서는 무청 관련 관아의 기록이 거의 전무하지만, 읍사례를 통해 동래부 관아의 다수를 차지했음을 사료 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즉 기본적인 사료로 인식되는 읍지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관아는 극소수이며, 관방의 요충지답게 많은 무청이 존치했음을 재정 및 회계장부 역할을 한 읍사례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읍지의 기록을 보완 가능할 정도로 읍사례는 관내 여러 관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두 사료는 서로 보완적이며 비교·대조를 통해 동래부의 행정 및 군정 관련 여러 관아 시설의 존치와 그 내역을 살필 수 있었다.

10) 什休亭와 仇法谷은 搜檢所를 설치한 곳이다. 십휴정은 동래부의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이고, 구법곡은 동래부의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으로 초량왜관의 倭人에 의한 밀무역 및 민간의 潛商 활동을 막기 위해 수검소를 설치해 譏察을 했다.

9) 조선시대 관아의 위계성은 經國大典의 衙門 서열로 결정되는데 議政府가 1품 관아, 戶曹가 2품 관아인데 首長의 품계로 정한다.

3. 내부중기를 통해 본 동래부 관아 시설

3-1. 중기의 작성과 기술 특징

중기(重記)는 일반적으로 관원이 사무(事務)를 인계(引繼)할 때에 전(傳)하는 문서나 장부를 의미한다. 법제화된 서식은 아니었지만, 그 유래를 고찰하면 조선 태종 시기부터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¹¹⁾

조선 초기 사료 속 중기는 일반적으로 ‘지방 관아의 출납 장부’를 의미했다. 지방 부·목·군·현의 관아 재정과 각종 물품 현황을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중기는 작성되었고, 이것이 후일 발전하여 해유중기(解由重記)¹²⁾나 등내중기(等內重記)¹³⁾ 등의 형식으로 남겨졌다.

조선 후기 중기의 작성 목적은 국가 소유의 시설 및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 및 관리 체계의 지향이었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원의 해유(解由) 영역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관원의 이임 및 부임 등 교체시기에 해유 문서의 승인을 통해 국가 재산의 손실이나 분실을 최소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중기》와 같은 공문서의 작성이 이뤄졌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내부중기(萊府重記)》는 철종10년(1859) 8월에 2책의 필사본으로 작성되었고 1책은 113장, 2책은 22장으로 구성되었다. 형식을 갖는 공문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존하는 것은 내용상 해유중기에 해당한다.¹⁴⁾ 작성 당시 동래부사는 김석(金錫)이며¹⁵⁾ 1859년 6월 무렵 순영(巡營)의 장계로 인해 파직되었다. 후임으로 정헌교(鄭獻敎)가 결정됨에 따라 김석의 이임을 위해 해유문서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남겨되었다.

중기와 같은 공문서의 발달은 해유(解由)와 관련이 깊다. 해유 문서의 경우에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을 근거로 문서식(文書式)이 법제화되었고, 이후 새로운 법령의 추가에 따라 그 내용은 더욱 구체화되며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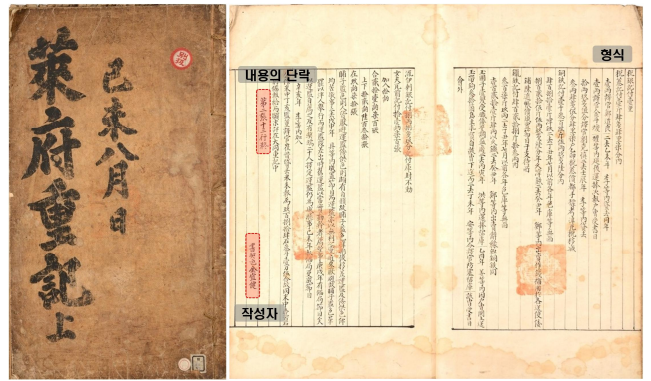


그림 3. 내부중기(1859)의 표지와 내부 구성

완되었다. 해유의 서식이 발달함에 따라 중기 또한 이와 연동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기록물로 남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되어 현존하는 중기는 대부분 해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형식 또한 부서명인 ‘색(色)’과 하위체계인 ‘질(秩)’로 구분되어 규범적인 내용을 담은 공적 기록물로 체계화하였다.

《내부중기(1859)》는 동래부가 작성했던 중기로 유일하게 발굴되었으며, 《동래사례(1868)》와 작성 연대 차이가 10여 년에 불과하므로 두 사료의 비교를 통해 19세기 중엽의 고을 상황을 살필 수 있다. 서식은 타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해유중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상 구성은 동래부 내 분장된 부서별 ‘색(色)’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중기가 일반적으로 관원의 교체 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되거나 혹은 연차별 재물조사 성격을 갖는 문서이므로, 《내부중기(1859)》에서도 부서별 ‘색(色)’ 아래 물품의 가입 및 지출, 현재의 수량을 기록했다. 또한 특정 연도에 수령이 가입(加入) 혹은 별비(別備)한 물품도 기록하였고 특징이 있을 경우 내력에 대한 현주(懸註)를 달아 변동사항도 상세히 밝히려 했다.

<그림 3>은 《내부중기(1859)》의 표지 및 내용 구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읍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형식에 내용의 단락을 세어 부서별 서술이 끝나면 ‘第○張○行終’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이며 그 마지막 내용이 어디까지 인지를 표기해 추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항목별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책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내부중기(1859)》는 나름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다른 것과의 비교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지만, 작성 시기에 맞춰 그 시대 상황을 기록 속에 남겼다. 이를테면 《동래사례(1868)》는 어떤 목적하에 별도로 제작된 읍사례이며, 《동래부읍지(1895)》는 중

11)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1417) 윤5월 4일 기미
…衙中率來奴婢數, 慶祿支給, 一依詳定, 實無過程, 明在成興府重記.

12) 解由는 관원의 교체 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하는 법률적 절차로서 이를 위해 작성한 중기를 해유중기라 한다.

13) 等內는 관원의 재임기간 또는 그 벼슬을 역임하고 있는 동안을 말하며 이 시기의 변동을 중심으로 작성한 중기를 등내중기라 한다.

14) 내부중기는 2책으로 구성되었고 서두에 ‘己未八月日各所都重記’라 적혀있어 ‘1859년 8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를 의거해 1859년 6월 신임 동래부사로 정헌교가 임명되자 전임자인 김석이 이임을 위해 해유문서를 작성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5) 김석은 延安인이며 1850년 문과에 급제해 1859년 1월 동래부사로 부임했으나 초량왜관에서 벌어진 交奸 사건으로 경상도관찰사 洪祐吉의 장계에 따라 그해 6월 파직됨에 따라 이임하게 된다.

양 조정의 상송령에 의거해 영남읍지의 작성 의도에 따라 첨부된 ‘부사례(附事例)’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들 모두 19세기에 작성된 공통점을 가지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동래부 내 부서별 명칭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다음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5. 19세기 작성된 중기 및 읍사례에서 부서[色] 명칭

1859년(중기)	1868년(읍사례)	1895년(읍사례)
戶長	府司 戶長	戶長
戶房色	吏房	吏房
禮房色	戶房	戶房
兵房色	禮房	禮房
刑房色	兵房 軍器例兼	兵房
工房色	刑房	刑房
釜大同色 防役色兼	工房	工房
接賓色	軍器	軍器
軍器色	山倉(山城倉)	山倉
守倉色	守倉(守城倉)	守倉
山倉色	大同	大同
官廳色	防役	防役
貿易色	藥局(醫生)	執事
雇馬色	官廳	官廳
醫生	貿易	貿易
戶籍色	支持	支持
紙筒	會計	會計
親兵衛廳	釜倉	釜倉
作隊廳	日供	承發
將官廳	雇馬	雇馬
別騎衛廳	接賓	邊情監
教練廳	紙筒	通引
都訓導	戶籍	譯學
會計色	紙倉	書契
書契色	朔膳	接賓
釜倉色		朔膳
支持色		平倉
日供色		歲抄

각 사료 간의 기록 연도 차이는 많지 않으나 부서별 명칭은 그대로 존속하지 않았고, 시대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부서는 그대로인데 이를테면 어느 사료에서나 호장(戶長)은 부사(府司)를 맡으며 부내 재정 총액을 관리하며 관원의 으뜸을 차지했다. 그리고 육방(六房)과 연관된 부서 및 군기(軍器), 대동(大同), 관청(官廳) 등 주요 부서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내부중기(1859)》에서 호장은 전체를 통괄하지만 무청(武廳)은 직접 관리하지 않은데 반해, 《동래사례(1868)》에서는 ‘각청각처직하(各廳各處直下)’로 향청, 중영(中營), 군관청, 교련청, 장관청, 별기위청, 수성청, 무사청 등에 직접 재정을 분급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동래부읍지(1895)》의 읍사례에서는 각 색

(色)마다 재정을 분급했지만 지방질(支放秩), 구폐질(掾弊秩), 무지질(武枝秩), 군졸질(軍卒秩), 인리질(人吏秩), 도예질(徒隸秩) 등으로 더 세분하여 충원된 수효에 따라 재정을 나눠주고 관리했음을 밝혔다. 즉 시기별로 동래부 내 조직의 구성이나 공문서의 기술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동래부에 있어서 관아 시설이 조직 기구나 부서와 일체화된 것은 아니었다. 읍사례와 중기의 내용을 비교하면 행정 중심의 관아는 책임자와 색리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군정 중심의 관아는 수장과 색리가 이원화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향청에 있어서 좌수가 책임자이며 수장이지만 실무자는 호장, 이방, 호적색 등의 색리가 배치되어 있었다. 예방색의 경우에 중기에서는 향교와 사직단, 여단, 충렬사 등의 관리를 맡은 책임자였지만 별도의 집무실 즉 좌기청(坐起廳)을 마련하는 수장급은 아니었다.

무청(武廳)과 같은 군정 중심의 관아 시설 경우에는 수장인 군관이나 별장 등이 있었지만, 별도로 행정을 맡은 색리가 있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친병위청의 경우에 수장급은 별장이지만, 별도로 친병위청 색리가 있어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창고 시설을 갖춘 군기소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자인 감관(監官)과 실무자인 색리(色吏), 고자(庫子)가 업무에 맞춰 적절히 충원되기도 했다.

즉 조선 후기 동래부의 기구와 조직은 관아 시설별로 책임자가 있지만, 업무상 실무자이며 관리자인 색리가 분장하기도 하였고, 혹은 부서인 ‘색’이 집무실인 좌기청을 갖고 여러 시설을 함께 담당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중기는 읍사례와 유사한 기술 특징을 갖지만 부서별[色] 체계에 맞춰 기술하며, 지방 관아가 행정 및 재정 일치의 회계운영을 중심으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아의 유지와 관리 또한 부서별[色] 체계에 따라 운영되었고 책임자와 관리자는 이원화되었으며 관청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분장이 이뤄졌음을 살필 수 있다.

3-2. 부서별[色] 중심의 관리 체계

조선 후기 지방 관아에서 조직한 ‘색(色)’은 이서(吏胥)와 무관(武官) 등이 중심이 되는 부서를 의미한다. 《내부중기(1859)》에 기록된 동래부 조직 체계의 경우에 ‘28색(色)’으로 조직되었고¹⁶⁾ 각 부서의 색리(色

16) 내부중기가 작성될 무렵 동래부는 28색으로 구분되었고, 이 중

吏)들이 중기 내용에 대해 인준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문서에 기록된 부서 구성 및 담당 명칭은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내부중기에서 동래부 색(色) 구성과 담당 색리(色吏)

色名	擔當	色名	擔當	色名	擔當
戶長	李時允	山倉色	韓宇烈	別騎衛廳	金永禧
戶房色	趙啓元	官廳色	具儀俊	教鍊廳	金麗漢
禮房色	姜秉玖	貿易色	文仁翰	都訓導	金宗弼
兵房色	朴仁進	雇馬色	李必根	會計色	金斗星
刑房色	魚聖駿	醫生	徐啓昊	書契色	金宜健
工房色	白壯昊	戶籍色	白奇昊	釜倉色	朴仁曄
釜大同色	金斗遠*	紙筒	孫在源	支待色	李雨成
接賓色	辛世榮	親兵衛廳	河斗滿	日供色	辛聖宇
軍器色	金章韻	作隊廳	劉仲儔		
守倉色	朴元璫	將官廳	金斗崙	*釜大同/防役 兼色	

동래부의 조직 체계와 관아 시설 간의 상호관계는 《내부중기(1859)》의 기술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래부사 아래로 여러 부서인 ‘색(色)’이 조직되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이는 색리(色吏)였다. 색리가 맡은 임무는 분장된 관청 물품 및 시설에 대한 유지와 관리였다. 여기서 물품은 재정 및 회계와 일치하였고, 시설 또한 관청 물품처럼 신건·보수·재건 등의 건축행위를 통해 유지 및 관리로 지키고 보존해야 했다.

중기의 기술 특성상 내용은 크게 부서인 ‘색(色)’과 그 하위체계인 ‘질(秩)’로 구성되며 품목과 시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갑자(甲子)로 연도를 표기하고 어느 관원의 임기 내[等內]에 발생했음을 기재하였다. 즉 관아 시설과 같은 건축물은 여타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이와 동일하게 변동사항이나 내역을 기재한 것이다. 《내부중기(1859)》의 내용 기술에 있어 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禮房 色

鄉校祭器 秩

鑰籩參什伍立

鑰簋參什伍立

(中略)

鑰爵肆拾貳坐內 拾坐庚子年 李等內修補

柒坐丙辰年 徐等內修補

鑰大燭臺陸雙內 壹雙辛丑年 洪等內修補

大酒甕一坐 庚子年 李等內新備

(中略)

東庫柒間 貳間改建 伍間修補

南庫伍間 修補

金斗遠은 大同色이자 防役色을 겸직하고 있다.

斛子貳坐 丁亥年 尹等內備上

(中略)

第十四張二十六行終

禮房色 姜秉玖

1책 24쪽부터 부서의 하나인 ‘예방색(禮房色)’ 관련 기술이 시작되며 하위체계로 ‘향교제기질(鄉校祭器秩)’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향교가 보유하는 품목에 대한 명칭 및 수량에서부터 변동 및 처리사항까지 관련된 사항은 모두 기록했다. 이를테면 향교에서 ‘유작(鑰爵)¹⁷⁾ 42좌 내’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10좌는 ‘경자년 이등내가 수보’했고 7좌는 ‘병진년 서등내가 수보’하였음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내용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내부중기》의 작성 연도가 1859년(기미년)임을 감안하면 경자년은 현종6년(1840), 병진년은 철종7년(1856)을 뜻한다. 여기서 ‘등내(等內)’는 임기 중인 동래부사를 뜻하므로 ‘경자년 이등내’는 이명적(李明迪, 재임 1838.1~1840.6)이고 ‘병진년 서등내’는 서당보(徐堂輔, 재임 1855.7~1857.1)를 가리킨다.¹⁸⁾ 비록 기재 내용은 간략하나 관리 및 변동사항을 여러 사료 간의 비교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주옹(大酒甕) 1좌(坐)와 같이 과거에는 이 물품이 없었지만 경자년(1840년)에 이등내[李明迪]가 새로이 갖추었을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기재했다. 각 품목에 대해 보수하거나 새로이 갖추 경우[新備]와 같은 변동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연도 및 관원을 표기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과 같은 시설 관련하여 별도 표시 없이 명칭과 변동사항을 함께 기재하였다. ‘향교제기질’에서는 향교 내 동고(東庫) 및 남고(南庫)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했다. 이를테면 동고는 7칸으로 이 중 2칸은 개건(改建)하였고 5칸은 보수(補修)했음을 그리고 남고는 5칸이며 보수한 것임을 밝혔다. 이는 부서별로 보유 시설에 대한 규모와 처리 및 변동사항을 중기에 기록하여 정확한 사실을 남기려 했음을 보여준다.

중기의 작성은 매우 엄중했고 물품의 수량이나 처리사항, 책임 여부 등을 명확히 하였다. 기술에 있어서 숫자는 함부로 수정하기 어려운 글자를 차용하였다.¹⁹⁾

17) 祭器의 한 종류로 鑰器(낫그릇)로 제작된 술잔을 이른다.

18) 等內는 임기 중인 官員을 뜻하므로 읍지 및 승정원일기 등 타 사료 간의 비교를 통해 관원의 실명과 그 임기를 확인할 수 있다.

19) 이를테면 3(三)은 參, 5(五)는 伍, 7(七)은 柒, 10(十)은 拾 등으

문서 말미에는 부사, 좌수, 군관 순으로 수결(手決) 하여 공적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중기 작성자였던 중기색 즉 담당 색리의 성명도 함께 기재했다. 《내부중기(1859)》의 작성자는 중기색(重記色) 김문건(金文健)과 김필신(金必宸)이었고, 그들은 수결(手決)을 남겨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름 아래에 ‘자신들이 중기를 맡아 상세히 살펴 명백히 기록하였고 뒷날 내용에 대해 상의하려면 자신들이 처리할 것이다’²⁰⁾라고 문서 말미에 적어 두어, 작성에 대한 책임 여부도 드러내었다.

중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중엽 동래부에서 관아의 관리는 관청 물품처럼 간주해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 엄중한 처리내역이 요구되었다. 건물이 훼손되면 보수해야 했고 이에 대해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앞서 향교 동고(東庫)의 변동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동고의 규모는 7칸인데 이 중 2칸을 개건하고 5칸을 보수했음을 기록해 두었다. 즉 관아 건물 또한 고을 관청 물품의 하나이며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여타 물품처럼 간주해 다룬 것이다.

이와 같이 관아 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부서별[色]로 분장되어 관리되었고, 재정의 영역에서 그 처리가 이뤄졌다. 《내부중기(1859)》를 통하여 19세기 중엽 동래부 관아 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여타 관청 물품처럼 간주되었고 그 처리 또한 동일했다.

4. 행정과 재정이 일치된 관아의 유지와 관리

4-1. 부서[色] 중심의 관리 체계

조선 후기 중기의 작성 목적은 관아 소유 물품의 회계장부로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두었다. 증빙과 확인을 위한 중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기마다 작성했을 것이지만, 현존하는 문건은 드물며 동래부의 것으로 유일하게 《내부중기(1859)》가 남아있다. 이 문서에는 동래부 관아 내 물품의 출납을 감색(監色)이 맡아 처리했으며, 부고(府庫)에 저장된 모든 것에는 품명 및 숫자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19세기 중엽 동래부에서는 부서별로 관장하는 감색을 두어 그의 책임 하에 관련 사항 모두 확인 및 대조를 거쳐 문서에 기록하여 해유 발생 시 중기를 작성해

로 기록하여 혹여 발생할 변경됨을 방지했다.

20) 重記色 手決 뒤에 ‘白等矣徒等次知重記詳細考閱書錄爲白去乎日後如有相左之事是白去等矣徒等處當推教事’라 적어 책임을 밝혔다.

표 7. 내부중기(1859)에서 부서별[色] 관아 명칭 및 규모

부서명	건물명칭	규모	처리 및 변동사항
禮房色	鄉校 東庫	7칸	2칸 改建, 5칸 修補
	鄉校 南庫	5칸	修補
	鄉校 紅門		改建
	鄉校 南樓		重修
兵房色	假家 鷄鳴峰	2칸	新建, 己巳年 吳等內
	瓦家 鷹峰	4칸	
刑房色	刑獄 男庫	3칸	戊戌年 朴等內 改建盖瓦
	刑獄 女庫	3칸	丙辰年 徐等內 改建盖瓦
	刑獄 保管廳	4칸	丙戌年 尹等內 改建盖瓦
軍器色	火藥庫	2칸	重修
	弓矢庫	5칸	
	挾門	1칸	
守倉色	女堞	1318타	癸未年 李等內 改築捌百拾柒
	南門(2층)	9칸	丙辰年 徐等內 改建
	女堞左右挾門	각1칸	
	體城		周回 8里1步5寸
	西門樓	6칸	己亥年 李等內 改建
	女堞左右挾門	각1칸	
	東門樓	6칸	
	北門樓	1칸	壬辰年 朴等內 改建
	暗門樓	1칸	己卯年 朴等內 改建
	堡樓(16처)	37칸	
	坐起廳	6칸	壬辰年 朴等內 修補
	庫舍	37칸	鳥銃庫3칸 壬辰年 朴等內 修補 軍器庫3칸 癸巳年 李等內 修補
	守城軍官廳	8칸	
	將臺五樑閣	9칸	丁丑年 洪等內 移建
	人生門	1칸	癸卯年 林等內 巡營防塞 乙巳年 林等內 營題復設
	門將廳	3칸	
西門門將廳	4칸	瓦家 去舊新建 辛酉年 韓等內	
火藥庫	2칸	乙巳年 林等內 重修	
鳥銃庫	3칸		
山倉色	僧將臺	4칸	改建
	隊將所接廳	7칸	
	哨官廳	4칸	
	山城		周回 32里75步
	女堞	2838타	
	東門樓	6칸	
	東門 守直廳	3칸	
	西門樓	6칸	
	西門 守直廳	3칸	
	南門樓	1칸	
	南門 守直廳	3칸	
	北門樓	1칸	
	北門 守直廳	3칸	
	坐起廳	8칸	
	倉庫	36칸	35칸 磚石 己卯年 朴等內
	體城	639과	改築
女堞	2045타	改築城堞	
四門樓及守直廳	3칸	修補	
衙門	3칸		
軍器庫	3칸		
後堂	4칸		

	校吏廳	7칸	
	奴隸廳	3칸	
將官廳	庫舍	2칸	瓦家, 抹樓, 姜等內 新建

남겼다. 《내부중기(1859)》의 내용에서도 부서별[色]로 관장하며 물품을 다루듯이 관아 건물을 취급했고 신건·보수·중수·개건 등의 공사행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하였다. 다음 <표 7>은 부서별[色]로 관장했던 관아 시설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향교의 창고나 형옥 등 일부 건물은 읍지나 읍사례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로 중기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내부중기(1859)》의 작성 연도를 감안하면 문서의 내용에 기재된 관아 시설은 비교적 근시일 내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적시하였고, 기존의 모든 건축물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예방색이 관장하는 동래향교(東萊鄉校)의 경우에 순조13년(1813) 이건(移建)했지만 1859년 무렵의 중기 기록에서는 최근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던 건물인 향교 내 동고, 남고, 홍문, 남루에 대한 것들만 살필 수 있었다. 즉 건축물의 경우에는 근시일 이내의 변동사항만을 기록한 것이다.

동래부의 부서는 일반적으로 육방(六房) 체제를 기반으로 했다. 이는 중앙의 육조(六曹)를 모방하여 출발했고, 지방 관아 역시 이 체제가 적용되어 담당 관서를 맡았다. 동래부의 경우에 이방(吏房)의 명칭은 보이지 않아 그 역할을 호장(戶長)이 대신했으며 그 아래로 호방~공방이 있어 담당 관서를 관장했다. 이를테면 예방색의 경우에 향교, 사직, 여단, 성황당, 충렬사 등을 맡았고 병방색은 봉대오처(烽臺五處)²¹⁾를, 형방색은 형옥을, 공방색은 공방(工房)을 담당했다.

이 중 형방색(刑房色)이 관장하던 형옥(刑獄)의 경우에는 읍지나 읍사례에서 그 기록을 찾기 어렵다. 《내부중기(1859)》에서 동래부 형옥은 남고(男庫), 여고(女庫)로 분리되었고 그 규모는 각각 3칸이었으며, 4칸 규모의 보관청 존재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이들 시설들은 각각 현종4년(1838)·철종6년(1856)·순조26년(1826)에 개건(改建)되었고 개와(蓋瓦)되었다.

조선 후기 동래부는 대일본 해안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독진’으로서 관방의 요충지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시설물을 갖추었다. 이들 관방 시설을 관장한 부서는 수창색(守倉色)과 산창색(山倉色)이었다.

수창색(守倉色)은 동래읍성(東萊邑城) 일원을 그리고 산창색(山倉色)은 금정산성(金井山城) 일원 시설 대부

분을 맡았다. 동래읍성의 경우에는 1592년의 임진왜란 발발로 크게 파괴된 후 복구되지 못하다가, 무신란(戊申亂, 1728)을 겪은 후인 영조7년(1731)에 이전의 것보다 더 확장된 읍성의 규모를 새로 갖추었다. 금정산성의 경우에도 동래읍성을 대신할 피란처로 삼을 요량으로 숙종29년(1703) 축성되기 시작하여 여러 번의 수축을 거쳐 순조8년(1808)에 개축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곽의 보수가 요구되었고, 이것을 맡은 부서가 수창색과 산창색이었던 것이다.

수창색의 관장 아래 동래읍성 서문(西門)은 현종5(1839) 부사 이명적(李明迪, 재임 1839.1~1840.11)이 개건(改建)하였고, 북문(北門)은 순조32년(1832) 부사 박제명(朴齊明, 재임 1831.2~1833.6)이 그리고 암문(暗門)은 순조19년(1819) 부사 박기수(朴綺壽, 재임 1817.9~1820.2)가 개건했다. 동래읍성의 각 성문에 대해 한번에 중창공사를 통해 개건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동래읍성 내 성문의 하나이나 작은 규모였던 인생문(人生門)에 대한 기록도 《내부중기(1859)》에서 찾을 수 있다. 《동래부지(1740)》에서 인화문(仁和門)이 나타나는데²²⁾ 아마도 인생문의 원래 명칭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영조11년(1735) 부사 최명상(崔命相, 재임 1734.8~1736.4)이 인화문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내부중기(1859)》에는 인생문의 개폐(開閉)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현종9년(1843) 순영(巡營)의 명에 따라 인생문은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색(防塞)되었다. 그러자 부민(府民)이 불편을 호소하여 영제(營題)²³⁾를 통해 1845년에 복설(復設)할 수 있었다.²⁴⁾

《내부중기(1859)》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19세기 중엽 동래부에서는 대대적인 중건이나 중창에 이르는 영건 사업은 없었다. 변동사항에 있어 한 특정 동래부사에 의한 대대적인 영건 공사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편의에 의한 소규모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를테면 병방색이 관장하는 봉수대에 있어서 순조9년(1809) 부사 오한원(吳翰源, 재임 1806.2~1809.2)이 계명봉 가가(假家) 2칸과 응봉 와가(瓦家) 4칸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또한 철종7년(1856) 수창색이 관장하던 남문 9칸 및 여첩 좌우의 협문(挾門)을 부사 서당보(徐

22) 東萊府誌, 城廓 邑城 仁和門一間 門將廳二間 門直家二間 乙卯府使 崔命相 建

23) 營題는 백성이 올린 所志나 청원서에 대하여 監營에서 적절한 처리를 내리던 글발인 題辭를 의미한다.

24) 이 무렵 동래부사는 林永洙(재임 1843.9~1845.5)였고, 경상도관찰사 李景在가 인생문을 폐쇄하고 후임인 洪鍾英이 복설하였다.

21) 이 무렵 동래부 관할 봉수대는 黃嶺山, 雞鳴峯, 鷹峯, 龜峯, 干飛鳥 등 5처였다.

堂輔)가, 서문 6칸 및 여첩의 좌우 협문을 헌종5년(1839) 부사 이명적(李明迪)이 개건하였다. 화약고와 조총고 두 건물 또한 헌종11년(1845) 부사 임영수(林永洙, 재임 1843.9~1845.5)가 중수했다. 서문 일대를 우선 개건한 후 후임 부사가 남문을 개건하고 주요 창고를 수리하는 등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뤄졌다.

이와 같이 동래읍성은 수창색이 말고 금정산성은 산창색이 맡는 등 19세기 중엽 동래부 관아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부서별[色]로 관장되었고, 대규모 영건 공사를 지향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처럼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4-2. 물품관리 위주의 유지 행태

중기는 일종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회계장부이므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기술의 형식은 반드시 부서별[色]로 구분하고 하위체계로 ‘질(秩)’이 있다. 물품 중심의 회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의도에 중점을 두었기에 내용의 난이도는 상당하다.

《내부중기(1859)》를 통해 19세기 중엽 부서별[色]로 관장하던 주요 관아 시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동래부 조직으로 육방(六房)이 있어 부서별로 여러 관아를 관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기록상 이방(吏房)의 역할은 향정 중심으로 호장과 호적색이 관장했고, 예방(禮房)은 예방색이 담당이 되어 동래부 내 향교, 사직단, 여단, 성황당, 충렬사 및 별묘 등 주요한 시설을 관장했다.

표 8. 내부중기(1859)에서 부서별[色] 관장했던 관아 시설

부서	시설
禮房色	鄉校·社稷·厲壇·宋公壇·城隍堂·忠烈祠 일원
兵房色	五處烽臺·蘇山驛
刑房色	刑獄
工房色	客舍·府公須·釜倉·草梁客舍 일원
軍器色	火藥庫·弓矢庫
守倉色	東萊邑城 四大門·暗門·堡樓·女堞 일원
山倉色	金井山城 四大門·官衙·倉庫 일원

예방색이 관장한 시설은 제례(祭禮)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 수록되었다. 예방이 맡은 관아의 특성상 제기(祭器)와 서책(書冊), 가구(家具) 등이 다수였고 이것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향교와 사직 등 여러 시설들이었다.

이에 예방색은 향교제기질(鄉校祭器秩), 사직제기질(社稷祭器秩), 여제제기질(厲祭祭器秩), 충렬사제기질(忠烈祠祭器秩), 별묘충렬사제기제복질(別廟忠烈祠祭器

표 9. 예방색이 관장했던 향교·사직·여단·충렬사 등의 목록

鄉校	社稷	厲壇	忠烈祠	忠烈祠別廟
鑰籠	鑰籠	沙鉢	鑰籠	鑰籠
鑰爵	鑰爵	沙湯器	鑰爵	鑰爵
鑰簋	鑰簋	沙簋	鑰簋	鑰簋
鑰玷	鑰玷	沙盞	鑰香爐	木燭臺
鑰香爐	鑰香爐	沙香爐	鑰香盒	鑰樽
鑰香盒	鑰香盒	沙盒	鑰燭臺	木香盒
鑰燭臺	木燭臺	木燭臺	木卓床	木筥
竹籩	竹籩	竹籩	樽小床	
木筥	木筥	柳器	鼎	
交倚	交倚	水瓮	交倚	
架子	架子	無足平床	盥洗位床	鄭僉使別廟
筥子	筥子		白紋席	鑰籠
鑰龍爵	鑰象樽		莞草席	鑰爵
大酒甕	位版		地衣	鑰簋
小俎床	卓床		茅草席	鑰象樽
盥洗位床	角帶			沙香盒
神位前卓床	地衣			沙香爐
甌				沙盞
瓶				竹籩
樽小床				筥子
斛子				木筥
酒倍				菹床
莞草席				
地衣				

祭服秩), 정침사별묘제기질(鄭僉使別廟祭器秩)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물품의 수량 및 변동·처리사항을 기록하였다. 이를테면 사직단의 경우에 보유 품목을 상세히 적시하되 순조29년(1829) 부사 홍희조(洪義祖, 재임 1829.7~1831.1)에 의해 새롭게 시설이 개비(改備)된 사실을 적어두었다.²⁵⁾ 즉 회계처리상 물품이 우선시되지만 이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인 시설 또한 관리 대상으로 중시된 것이다.

<표 9>는 예방색의 여러 ‘질(秩)’에 기재된 물품 목록 사항의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시설에 따라 보유된 물품 품목 품질은 매우 달랐다. 이를테면 향교의 것은 유(鑰)제품이 다수였음에 반해, 여단의 것은 사(沙)제품이 많았던 것이다. 즉 제향(祭享)하는 대상의 신분에 따라 시설에서부터 제기에 이르기까지 품질에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관아 물품의 유지 및 관리가 최우선시 되었기에, 시설마다 별도의 관리인을 배치했다. 객사의 경우에 객사도방자(客舍都房子)와 관직(館直)이 그리고 사직단과 여단의 경우에 단직(壇直)이 성황당의 경우에 당직(堂直)이 맡았다. 단직 및 당직은 대자(岱子)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은 ‘제물(祭物)을 넣어 두는 주머니’로 시설의 담당자임을 확인받았다.²⁶⁾

25) 己丑年 洪等內 加入 社稷壇臺新改備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제기나 서책, 가구 이외 중시된 것은 바로 자물쇠[鎖金]였다. <표 9>에서 교의(交倚)나 상(床)은 가구들로서 시설 내에 비치되며 중요 물품으로 관리되었고 자물쇠 또한 보관을 위한 시설의 잠금 장치로서 중시되었다. 이를테면 사직단 신문(神門)의 자물쇠는 순조6년(1806) 부사 정만석(鄭晩錫, 재임 1803.윤2~1806.1)이 1부(部)를 만들어 가입(加入)했음을 적어둘 정도였다.²⁷⁾

자물쇠 이외에도 시설 내 솔과 돛자리, 깔개 등도 주요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관리되었다. 이들 물품은 건축물 내부 공간에 유지·보관되는 것들이며 품목 및 숫자로 증기에 기재되었다. 이를테면 공방색이 관리했던 ‘부공수(府公須)’에서는²⁸⁾ 식정(食鼎), 유식정(鑪食鼎), 부정(釜鼎), 소식정(小食鼎) 등이 나타나며, 초량객사(草梁客舍)의 경우에는 지의(地衣)²⁹⁾나 완초석(莞草席), 방석(方席), 초석(草席) 등을 찾을 수 있다. 부공수와 초량객사는 각각 관원의 편의 제공 및 접빈의 장소이므로, 장인(匠人)의 기술이 부여된 특수한 물품들이 보관되었으므로 공방색이 관장한 것이다.

한편 동래부에는 변방의 요충지로서 무청(武廳)이 다수 설치되었지만, 이들은 병방색의 소관은 아니었고 분장된 임무에 따라 별도 운영되었다. 병방색의 경우에 무청이 아닌 황령산, 계명봉, 응봉, 귀봉, 간비오 등 다섯 곳의 봉대(烽臺) 즉 봉수대를 주로 관리하였고 ‘오처봉대즙물질(五處烽臺汁物秩)’을 작성해 남겼다.

기록을 보면 봉수대에는 조총(鳥銃), 화전(火箭), 장전(長箭), 편전(片箭), 흑각궁(黑角弓), 통아(桶兒), 교자궁(校子弓), 화약(火藥), 방패(防牌) 등을 비치했고, 봉수대를 맡은 관리인을 위한 식정(食鼎), 노구(爐口), 대변량미(待變糧米) 등의 물품 기록도 보인다. 소규모 전투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수(軍需) 물품의 비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관하는 다수의 시설물도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봉수대 관리와 관련하여 가옥 신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순조9년(1809) 부사 오한원(吳翰源)이 계명봉에 가가(假家, 임시 가옥) 2칸을, 응봉에 와가(瓦家)

4칸을 신건 하였다.³⁰⁾ 산 정상외의 외진 봉수대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와가 수준의 가옥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대의 각종 군수 물품을 보관했던 시설물의 존재가 확인된다. 기록에서는 연대(煙臺)와 연굴(煙窟), 화덕(火德), 동화줄(同火莖), 연초(煙草) 등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여기서 연초와 화덕 1좌, 연굴 5좌 등과 같은 기록은 원거리 통신수단으로서 봉수 신호를 발산했음을 알려주는 물품들이다. 화덕으로 불을 피워 연굴로 연기를 조성해 신호로 삼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연대 조성과 관련한 주목할 기록도 나타난다. 순조14년(1814) 조정(朝廷)의 명에 따라 5처 봉수대에 연대가 새로이 조성되었다. 동래부가 관장하는 5곳의 봉수대 중 4곳은 성 둘레를 각 80보(步)로 조성했으나 간비오(干飛鳥)의 경우에 지형에 의해 63보만 쌓았다.³¹⁾ 조정이 요구하는 80보의 규격에 따라 연대를 조성하려 했지만, 간비오의 경우에 지형 형편에 의해 조건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현주(懸註)를 달아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병방색이 관리했던 또 다른 시설로는 소산역(蘇山驛)이 있었다. 소산역은 역참(驛站)으로 동래부에서 20리에 떨어져 있었고³²⁾ 황산도(黃山道)에 속해 양산·울산 방면을 연결하였다. 부내 위치하는 역참으로 병방색이 관장하는 시설이었으나 이곳의 실질적 관리인은 참파발감관(站擺撥監官)이었다.

소산역과 관련하여 시설 세부 명칭이나 규모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없으며 소규모 공사 기록이 남아 있다. 파발장졸소(擺撥將卒所)와 접한 초가(草家) 8칸 규모의 문서지통고(文書紙筒庫)가 있었는데 노후화로 인해 무너졌다. 이에 순조17년(1817) 부사 조봉진(曹鳳振, 재임 1816.4~1817.10)이 3칸 규모로 줄여 개건(改建)하였다.³³⁾ 이를 통해 역참에 관문서를 임시 보관하며 역간 연결시켜 주는 문서지통고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관아 시설은 물품 회계를 중시하는 풍조 속에 그것의 보관 및 관리를 위주로 유지되

26) 사직단, 여단, 성황당에는 壇直 및 堂直이 제물입성대자(祭物入盛幣子)를 맡았는데 ‘제물을 넣어두는 주머니’를 뜻한다. 기록상 사직단직은 金守萬으로 13건을, 여단직은 朴共世로 5건을, 성황당직은 奴 黃用으로 3건을 받았다.

27) 丙寅年 鄭等內 加入 神門鎖金壹部

28) 公須는 관아에서의 접대 및 경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9) 地衣는 형겅으로 가장자리를 꾸미고 여러 개를 마주 이어서 크게 만들어 祭祀 때에 쓰는 돛자리를 말한다.

30) 兵房色 五處烽臺汁物秩 假家貳間鷄鳴峰 瓦家肆間鷹峯 新建 己巳年 吳等內 龜峯上 壬寅年 吳等內

31) 兵房色 五處烽臺汁物秩 煙臺壹坐 甲戌年 因朝令改煙臺新築 城周面 四處 各八十步 干飛鳥 因地形 六十三步

32) 東萊府邑誌(1832), 蘇山驛 在府北二十里 南距休山驛二十里 東距機張古村驛二十里 北距梁山渭川驛四十里 大馬一匹 中馬二匹 卜馬七匹 驛吏五十一人 奴二十四口

33) 蘇山站擺撥將卒所接草家捌間文書紙筒庫 上年久頽壓故改建 參間丁丑年 曹等內

34 논문

었다. 보유 물품 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시설의 노후로 인한 훼손이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개건이나 신건, 보수 등의 공사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작성된 읍지, 읍사례, 중기 등 옛 사료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19세기 중엽 동래부 관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지방 관아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이들 사료들은 작성 목적에 따라 나름의 특징을 지녔고, 특히 중기에 수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군현에서 작성한 읍지와 읍사례, 중기 등은 고을 행정 및 재정 상태를 기록한 사료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동래부 관아 시설의 명칭과 규모 그리고 유지와 관리 주체에 대해 확인하였다.

둘째, 동래부 관아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서 관내 조직 체제인 부서별[色]로 관장하는 면모를 확인하였다. 이는 관아 내 부서 감색(監色)의 주도하여 행정과 재정이 일치된 운영 체계를 보여주며 이에 따라 시설 관리가 이뤄졌다.

셋째, 19세기 중엽 동래부 관아의 유지와 관리는 관내 물품 보관 및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대규모 영건 및 중창 공사는 지양되었고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나 개건 공사가 대부분이었고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넷째, 동래부 관아의 행정과 재정 일치에 있어 물품 회계를 중시하는 풍조 속에 그것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한 시설물로서 관아는 유지되었다. 이는 19세기 관청에 있어서 물품 회계 중심 관리 체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옛 사료 속에 묻혀 있던 관아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실체를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지방 관아의 체계와 실상을 이해하고 건축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수 있었다. 향후 관련 공문서가 더 발굴된다면 관련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전반적인 건축물 유지와 관리에 대한 건축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東萊府誌(奎11904)』, 『東萊府邑誌(奎10877)』, 『慶尙道邑誌(奎666)』, 『嶺南邑誌(奎12173)』, 『嶺南邑誌(奎12174)』, 『萊府事例(奎4272)』, 규장각
2. 『輿地圖書』, 『東萊府邑誌』, 한국교회사연구소
3. 『萊府重記(1859)』, 한古朝38-42, 국립중앙도서관
4. 영남문화연구원, 『重記 I』,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5. 남권희·진유라·강유현, 「조선후기 동래부의 내부중기에 수록된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0집, 2014
6. 송혜영, 『동래지역 읍·영·진성의 공간구조와 관아시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7.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8.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접수(2022. 08. 02)

게재확정(2022. 09. 05)